

# 해남 농업연구단지, 전국 최대 미래농업 플랫폼으로 조성

AI·스마트농업 기반 연구·실증·기술·교육 클러스터 대전환  
민·관·산·학·연 협력 통해 스마트 농업 혁신 중심지로 조성

해남에 전국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농업연구단지가 AI·스마트 농업 기반의 미래농업을 이끄는 선도지구로 육성된다.

해남군은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가 내년 착공 예정이며 이에 밭맞춰 연구단지내 관련 시설들도 빠르게 접적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는 기후변화 대응 국가전략 수립과 기후변화 영향 예측, 대응기술 개발 등을 총괄하는 거점기관으로, 우리나라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해남군은 연관시설을 접적화해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총 82ha 규모로, 1단지에는 고구마연구센터와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등이 완공돼 운영 중이다.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조감도.

2단지는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APC, 채소류 종자전문생산단지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교육 연수시설과 민간기업 R&D시설, 마늘·고

구마 육종시설 등이 추가로 조성돼 연구에서부터 현장실증, 기술보급, 교육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플랫폼으로 조성된다.

AI와 스마트 농업, 종자 연구, 과수 연구 등 기술혁신과 실증시험을 폭넓게 진행하면서 농업 기술 상용화와 관련 기업 유치까지 내다보고 있다.

군은 대학교, 연구소, 기업 등 민·관·산·학·연 협력을 통해 스마트 농업 혁신기반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고추 기계 수확 시스템 구축, 지능형 농업기계 실증 시범단지 조성, 기후변화 대응 품종개발 및 기계 개발 등 스마트 농업 기기·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농업 혁신을 실현해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AI·스마트농업,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결합해 농업 혁신 중심지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농어촌수도 해남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전경.

## 영광 공설추모공원 정식 개원 본격 운영

### 70일 시범운영 서비스 체계 정비

군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추모 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한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이 지난 1일자로 정식 개원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통해 운영 절차 등 서비스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봉안당 개인단 24위, 부부단 14위, 자연장 9위가 안치되는 등

군민들의 이용 수요와 관심을 확인했다.

정식 개원과 함께 개장(이장) 유골의 안치와 안장도 가능해지면서 이용 대상이 확대돼 관내 주민들의 추모공원 이용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평화로운 운영 환경을 갖췄다”라며 “공설추모공원이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를 전하는 애도처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 목포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4번째 ‘부적정’ 의견 전달

### 부서 협의·주민 반대 여론 등 반영

목포시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관련해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부적정’ 의견을 제자 공식 회신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사업자는 지난해 11월 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번이 네 번째다.

목포시는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기존 방침과 동일하게 네 번째 부적정 의견을 전달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로, 목포시는 도심과 인접한 지역에 해당 시설이 입지하는 것에 대해 시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목포시는 그동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일관되게 부적정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해 왔다.

시는 허가권자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데 지역 여론과 시민 수용성, 환경

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향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정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도 대비해 건축·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며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지역 환경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전국 두 번째로 많은 규모

해남군이 2026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비자)로 총 974농가, 3081명을 배정받았다.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많은 규모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내국인 농작업 기피 등으로 인한 농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해남군이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년간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체계를 구축해 온 성과로 평가된다.

해남군은 결혼이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척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하고,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5개월 이상 상시 고용이 어려운 소농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026년에는 황산·평활·문내농협 등 3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황산면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40실 규모의 농업인 기숙사도 완공해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확대는 농가의 오랜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농촌 인력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영암군, 도선국사 그림책 ‘숲을 어루만지는 손’ 발간

### ‘옛이야기 그림책’ 일곱 번째 도서



오치근 작가  
가 그림을 그렸다.

주인공 별이가 도선국사 할아버지와 만나 다친 동물을 치료하며 숲과 동물이 사라져가는 것을 슬퍼하고, 그 해법을 찾는 내용이다.

그림책은 도선국사의 생애와 사상을 ‘숲’이라는 상징 공간을 매개로 그림책이라는 친근한 책을 읽는 이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도선국사 그림책은 영암이 품은 “도선국사 그림책이라는 친근한 책”으로 기대된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 ‘해양치유 일번지’ 완도, 동계 전지훈련지 인기

### 67개팀 선수 1842명 찾아

완도군이 온화한 기후와 체육 인프라, 해양치유에 힘입어 겨울철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얻고 있다.

완도군에 따르면 이번 겨울 들어 5개 종목, 67개 팀, 선수 1842명이 완도를 찾아 전지훈련을 실시했거나 계획 중이다.

경기대와 수원대 등 8개 축구팀이 훈련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순부터는 배드민턴, 소프트 테니스, 테니스, 조동부 축구팀 등이 완도를 찾는다.

완도는 ‘해양치유 일번지’로 청정한 해양 환경과 지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으로 동계훈련 선수들의 체력 회복과 힐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의 해양치유 시설인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16개 테라피를 이용할 수 있다.

저주파 테라피는 근육 강화와 통증 완화, 명상

풀은 전신 이완, 비수 테라피는 수압 마사지로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을 준다.

건강 측정실의 체형 분석기를 통해 체형 측정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해양치유 프로그램 체험 전후 신체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지훈련 선수단 전용 그룹 운동(GX)룸을 개방해 스트레칭과 휴식 공간도 제공한다.

곽대원 수원대 축구팀 감독은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처음 체험해 봤는데 선수들의 커디션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내년 완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양치유를 접목한 전지훈련은 완도에서만 가능하다”며 “차별화된 전지훈련 환경을 조성해 더 많은 선수가 찾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전년 대비 79% 증가

영암군이 지난해 32억원을 웃도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해 3년 누적 62억원 규모의 기금을 확보했다.

지난해 3만 34건의 기부로 총 32억 2618만원이 모금됐다. 2024년 18억 632만원 대비 79% 증가한 수치다.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 건수는 2만 8569건이고, 전체 모금액의 90%를 차지했다.

영암군은 고향사랑소아청소년과 등 의미 있는

고향사랑기금사업 운영, 지역 우수 농특산물 단체제품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가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한다.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는 107건, 기부액은 2억 8180만원이었다. 영암군은 향우와 지역기업 등의 기부가 꾸준히 이어진 결과라고 봤다.

영암군은 지난해 지역 우수 농특산물 및 단체제품 공급업체와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생·품질 관리, 포장·배송, 고객 응대 교육을 병행해 왔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 무안군, 외국인주민 군정 모니터링단 모집

무안군이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2026년 ‘외국인주민 군정 모니터링단’을 신규 모집한다.

외국인주민 군정 모니터링단은 2025년 첫 운영을 통해 정기 간담회와 생활 불편 사항 모니터링, 외국인주민의 현장 의견을 군정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오며 생활 행정과 복지 서비스, 문화·교류 분야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외국인주민

친화적 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집 대상은 무안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으로,

개인 모집을 통해 선별하며 국적과 배경이 다양한 구성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기 간담회와 현장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생활 불편 사항과 정책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등 군정 참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 세얼굴

## “농어업인에 소득과 희망 주는 공기업 되겠다”

### 정경훈 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농어업인에 소득과 희망을 주는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16대 해남완도지사장으로 취임한 정경훈 지사장은 “공기업으로 사회적 책무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 지사장은 “농어촌 상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농어업인에게 소득과 희망을 주는 일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농어업발전에 최선의 노력과 헌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광주 출신인 정 지사장은 1997년 입사해 본사 미래 전략실장, 영광지사장 등을 역임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